제10회, 둔촌 중국 백일장

입상 작품집 (2015)

성남문화원

제10회, 둔촌 중국 백일장

입상 작품집 (2015)

성남문화원

<발간사>

한·중 우의를 다지는 둔촌백일장

김 대 진(성남문화원장)

올해 5월 30일 성남의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에서 <한 · 중 수교 23주년 / 성남시 · 중국 심양시 자매결연 17주년>기념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이 심양조선족제6중학교에서 관계자, 교직원 및 조선족 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더욱이 열 번째 행사를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 도시 간 문화교류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심양시교육국과 심양시교육연구원에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둔촌백일장은 고려 말 나라에 대한 충성(忠誠), 부모에 대한 효행(孝行), 친구와의 우정(友情)을 실천하여, 이름난 학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역사인물인 둔촌 이 집(李集) 선생을 추모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언어인 한글을 빛내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둔촌 선생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인품은 오늘날까지도 본 받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큰 어른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조선족 학생들이 둔촌 선생을 본받아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백일장에서 '외로운 밥상'이라는 주제로 나온 작품과 이국땅 한인 100년 민족사의 애환을 담은 글을 낭독할 때 눈물이 나도록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둔촌백일장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다른 국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핏줄을 나눈 동포이고,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작품집을 통해 둔촌 선생을 기리는 것은 물론,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이 행사의 중요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촌백일장 행사와 입상 작품집 발간을 지원해 주신 이재명 성남시장님, 박권종 성남시의장님, 그리고 심양시교육연구원 부태민 원장님, 박영철 주임 등 사업을 이끄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 환영사

심양시 교육연구원장 부태민

존경하는 한국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님, 주심양한국영사관 이정한 영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과 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에 마음까지 따스해 지는 5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 제10회 둔촌백일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심양시교육연구원을 대표하여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 및 일행의 왕림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백일장에 참석하신 선생님과 여러 학생 동무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중 · 한 수교 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심양시와 성남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17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심양과 성남은 경제와 무역영역에서 왕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면에서도 교류가 광범위 합니다. 이는 심양의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양시와 성남시가 앞으로 문화교육면에서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문화교육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심양시 정부광장에서 제1회 둔촌백일장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10년이란 시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 계기를 통해 자기의 글짓기 능력을 제고하여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내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심협력으로 심양과 성남 지간의 문화교류합작의 미래는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 및 일행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 심양에 머무는 기간 즐겁고 순조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 축사

주선양총영사관 이정한 영사

김대진 문화원장님, 권혁 부회장님, 부태민 원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과 귀빈,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둔촌 중국백일장은 중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 있는 한글 글짓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시작된 둔촌 중국백일장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 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십 년간 둔촌 중국백일장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성남문화원, 선양시, 조선족 단체, 한인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얼을 담고 이를 형성하는 요체입니다. 둔촌 중국백일장을 통해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 중 관계는 수교 이십여 년 만에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양국 관계가 저절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 · 중 관계가 오늘날 수준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숱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가 학생 여러분, 한 · 중 두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머지 않아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활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둔촌 중국백일장이 여러분들에게 한글 공부의 좋은 계기이자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둔촌 중국백일장 개최를 축하하며,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 백

차 례

1. 발간사 ---------- 1

2.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 ---------- 2
환영사, 축사

3. 제10회 둔촌 중국백일장 스케치 ----- 7

4. 심사위원 명단, 입상자 명단 --------- 11

5. 입상작품(장원) ---------- 15

6. 입상작품(금상) ---------- 31

7. 보도자료 ---------- 79

성 남 문 화 원

여 백

2015년 제10회, 둔촌중국백일장 스케치

김대진 원장 격려사

부태민 원장 환영사

이정한 영사 축사

관계자 단체사진

참가학생들 글짓기사진1

참가학생들 글짓기사진2

참가학생들 글짓기사진3

참가학생들 글짓기사진4

제목

성남문화원장님과 함께

참가 학생들

심사위원

공연단학생들1

공연단학생들2

문화공연1

문화공연2

문화공연3

문화공연4

공연단 단체사진

입상자 단체사진1

입상자 단체사진2

입상자 단체사진3

입상자 단체사진4

2015년 제10회, 둔촌백일장 심사위원 명단

림금산 료녕조선문보 부총편

권춘철 료녕민족출판사 부총편

김창영 료녕조선문보 편집부주임

문운룡 료녕조선문보 주임

안순애 료녕성민족사무위원회 문교처처장

정봉화 료녕조선문보 기자

홍기천 료녕성기초교육양성센터 연구원

차경순 료녕조선문보 기자

김진해 심양시교육연구원 연구원

박선태 심양시교육연구원 연구원

2015 제10회, 중국 둔촌백일장 입상자 명단

상위	구분	학교 학년 반	성명	제목
장원 (7명)	고중조 (2명)	심양시조선족1중	윤춘홍	보이지 않는 얼굴
		장춘리공대학	탕하	보이지 않는 얼굴
	초중조 (2명)	심양시조선족6중	지가영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6중	김동희	미역국
	소학조 (2명)	서탑조선족소학교	김미혜	도심 속 텃밭
		화신조선족소학교	최지강	길
	교원조	심양시조선족3중	조남일	길
금상 (24명)	고중조 (6명)	심양시조선족1중	김경미	길
		심양시조선족1중	박려홍	미역국
		심양시조선족1중	정옥림	길
		심양시조선족2중	리동건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백문혜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안혜령	보이지 않는 얼굴
	초중조 (8명)	혼남구조선족학교	김주현	도심 속의 텃밭
		심양시조선족6중	정우성	길
		심양시조선족2중	김송비	보이지 않는 얼굴
		영구국제학교	리례본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연비	길
		심양시조선족3중	리나용	길
		심양시조선족6중	정승수	길
		심양시조선족6중	김가현	도심 속의 텃밭
	소학조 (8명)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향애	미역국
		화평구만융실험학교	차옥	보이지 않는 얼굴
		우홍구오가황조선족소학교	김나림	보이지 않는 얼굴
		화평구서탑조선족소학교	고주희	도심 속에 텃밭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경택	보이지 않는 얼굴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리우향	미역국
		심북신구조선족학교	리지연	길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강영주	길
	교원조 (2명)	화평구서탑소학교	김연화	보이지 않는 얼굴
		혼남구조선족학교	채춘옥	길

우수 (66명)	고중조 (18명)	심양시조선족1중	전애령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최미혜	하얀국물 미역국
		심양시조선족1중	박선경	미역국
		심양시조선족1중	박미령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서미란	미역국
		심양시조선족2중	리연미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박지현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2중	김해림	미역국
		선양국제학교	김유빈	보이지 않는 얼굴
		선양국제학교	신동화	미역국
		선양국제학교	백주희	미역국
		심양시조선족1중	김나우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1중	전홍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2중	손지수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1중	김소현	보이지 않는 얼굴
		선양한국국제학교	표현진	길
		심양시조선족2중	장경희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2중	류민지	길
	초중조 (24명)	심양시조선족6중	라기화	길
		심양시조선족2중	조해룡	길(둔촌 어르신)
		심양시조선족4중	홍리란	길
		심양시조선족6중	리의령	길
		심양시조선족6중	최선자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2중	김동매	미역국
		심양시조선족2중	박현경	미역국
		심양시조선족3중	김정애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은영	길
		심양시조선족6중	박옥령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해일	길
		심양시조선족2중	박미연	길
		심양시조선족6중	성지예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해월	길
		심양시조선족6중	최원혜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진선	길
		심양시조선족4중	김정연	길
		심양시조선족6중	김은령	길
		심양시조선족6중	박수빈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6중	손민서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6중	류해심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6중	리해정	미역국
		심양시조선족6중	정세윤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2중	림은혜	길
	소학조 (24명)	소가툰구조선족중심학교	윤희선	길
		화평구서탑소학교	송채환	길
		소가툰구조선족중심학교	윤흔	도심 속의 텃밭
		화평구서탑소학교	김지현	미역국
		화평구서탑소학교	전지은	보이지 않는 얼굴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지흔	미역국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림상우	보이지 않는 얼굴
		화평구서탑소학교	최지현	미역국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문지현	미역국
		소가툰구조선족중심학교	리청	미역국
	교원조	화평구서탑학교	정향란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4중	심용숙	길
		혼남신구조선족학교	최일선	도심 속의 텃밭
		소가툰구조선족소학교	조금숙	보이지 않는 얼굴
		한국국제학교	윤경숙	미역국

입상작품(장원)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윤춘홍
(고중조) 장춘리공대학교	탕 하
(고중조) 심양시조선족6중학교	지가영
(고중조) 심양시조선족6중학교	김동희
(소학조) 서탑조선족소학교	김미혜
(소학조) 화신조선족소학교	최지강
(교원조) 심양시조선족3중학교	조남일

여 백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윤춘홍

만물이 약동하게 되는 봄은 늘 애달프면서도 달콤하게 찾아듭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과 벚꽃들이 새하얗고 연분홍 자태를 뽐내며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훈기를 내 뿜는 봄바람에 얼어붙은 마음도 어느새 사그라 들며 녹아내립니다.

빛바랜 사진 속 이제는 아니 보이는 얼굴들에 지난 봄날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어렸을 때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노라니 아빠의 모습은 아니 보였습니다. 카메라에 딸애의 뛰노는 모습만 한 없이 새길 뿐 무뚝뚝한 중년, 딸바보 아빠는 카메라 밖에 있었습니다.

봄꽃에 기대어 순진무구한 웃음꽃 피우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 보였습니다. 점점 앵글 밖으로 숨고 있는 사춘기 소녀의 얼굴에는 봄날의 산뜻한 미소가 그을려 갑니다. 그래도 아빠의 카메라 속에는 그 해의 까칠한 아이어른,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함께 일 것만 같았던 익숙한 지난 시절을 뒤로 한 채, 한 해 또 한 해 다가오는 봄을 우리는 몸도 마음도 멀리서 느끼며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바라 볼 수 있었던 그대 얼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겨진 한 장의 가족사진만이 봄의 정겨움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 시절의 정겨움도, 그 시절의 소중함도, 그리고 그렇게 이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봄날은 외롭고 아련해져 갔습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오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가는 시절도 마음의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얼굴도 기약 없이 다가오는 봄처럼 느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봄이 가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 기억을 살며시 두드리고 다시 무언으로 떠나는 봄, 추운 겨울이 길어진다 해서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듯이 늦게나마 불어오는 봄바람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봄의 기운을 느껴 봅니다.

이제는 검은 숱 풍성하던 멋쟁이 아빠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래로 당신의 눈물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에 흔들리는 그대의 목소리가 말해줍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대의 떨림에 나뭇잎에 매달린 꽃잎이 애달프게 흔들립니다.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늦게나마 봅니다. 망연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봄꽃이 다시 펼쳐줍니다. 늦게나마 느낍니다. 무뎌져가는 이 마음, 따뜻한 봄바람이 녹여줍니다. 늦게나마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대의 얼굴, 가슴으로 새기던 미안함을 전해봅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무심한 세월 속 메말라진 마음, 이듬해에는 우리 가족, 누구의 빈자리 없이 햇살 좋은 봄날 이곳에서 봄날의 서정을 일깨워 보렵니다. 그립습니다. 그대, 보이지 않는 그대의 얼굴이…….

장원 (고중조)

보이지 않는 얼굴

장춘리공대학
탕하

우리 동네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신다. 육순 잔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정신은 젊은이 못지않게 아직도 좋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이웃이다. 장녀와 다른 손자들은 다른 곳에 살고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나는 고향에 가면 가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할아버지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왜, 아드님한태 안가시고 여기서 혼자 외롭게 사세요?"라고 물으면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신토불이라서 그런지 고향이 좋구먼." 하시면서 웃으신다.

우리 시골동네는 우리 옆집 할아버지처럼 젊은 사람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계신다. 다행이 우리 동네에 40이 넘은 노총각 '소주씨'가 사는데 이분은 우리 동네의 '보이지 않는 천사'다.

가끔 동네에 정전으로 인해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 며칠 전에 또 정전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소주씨는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일을 처리한다.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며칠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소주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그 소주씨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누워계셨다.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식사도 못 드시고 누워계

셨다. 소주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며칠 동안 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다.

소주씨는 우리동네 보이지 않는 천사다. 소주씨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마을 어르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고아원이나 노인 요양원 등에 알게 모르게 그들을 도와주며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물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얼굴들로 인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나도 앞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도심 속 텃밭

심양시조선족6중
지가영

번화한 거리,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들, 하루하루 바빠지는 발걸음, 모든 것이 빨라지고 발전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사회가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시기, 덕분에 우리들의 생활 수평도 발돋움 하고 있다. 매 사람 손에 스마트폰이 하나씩 쥐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간편하게, 더 모던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 템포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딱딱하게 기계화된 주위들, 그리고 그 속 쉴 틈도 없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춰가고 있는 사람들, 가끔 둘러보면 왠지 가련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길가를 거닐고 있던 나는 문득 작은 울타리들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다가서보니 그 곳은 아파트 아래 가꿔놓은 작은 텃밭이었다. 방울방울 맺힌 토마토, 푸르싱싱한 채소, 그리고 노오랗게 핀 오이꽃들, 생기 넘치는 자연의 모습은 주위의 허여멀건 아파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때 그곳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언제부터 우린 일에 눈이 멀어 바삐 달려왔던 걸까. 언제부터 주위의 모든 것들이 기계처럼 차가워졌던 것일까. 우연히 발견한 도심 속의 그 작은 텃밭, 누가 가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묻어나 있던 텃밭, 사람들도 잠시 바삐 몰아치는 발걸

음을 멈추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가 그 텃밭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같이 주위의 딱딱함에 물들어져 냉담해진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릴 텐데, 잠시 동안의 여유가 이 세상을 더 생기있게, 다채롭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나의 이 작은 부름이, 절실한 바람이 저 멀리에 까지 들렸으면 좋겠다. 언젠간 그 텃밭이 그 곳을 가둔 울타리들을 박차고 더 멀리까지 퍼졌으면 좋겠다. 도심 속, 바쁜 일상속의 여유.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동안 가져보는 것 어떨까?

미역국

심양시조선족6중
김동희

"싫어, 싫어. 미역국 안 먹을거야! 맛 없단 말이야!"

내 생일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나의 푸념소리. 그렇다. 나는 미역국을 싫어한다. 오늘은 나의 열다섯 번째 생일, 나에겐 의미가 깊은 날이다. 기대되는 마음에 어제 밤잠을 설쳤지만 나름 상쾌한 마음으로 기지개를 피며 방문을 열었는데 식탁을 보니 갑자기 미간이 좁아졌고 집안이 날아 갈 듯한 소리로 할머니를 향해 고함쳤다.

"내가 미역국 싫어한다고 했잖아! 왜 또 했어?"

날이 선 고양이처럼 한 번 발톱을 드러내며 옷가지를 들고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아침의 쌀쌀한 바람이 나의 뺨을 스치며 왜 그랬냐고 날 나무라는 듯 싶었고 길가의 제철 꽃들이 나를 비웃는 양 꽃을 반쯤 피우고 있었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할머니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미역국까지 해놨으니 난 속상하기도 했지만 나보다 연세가 한참이나 많은 할머니께 소리를 친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내 발로 나왔는데 또 다시 기어들어가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들어가도 할머니께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갈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 곳이나 떠돌아 다녔고 정처 없이 방황했다. 그러다 문득 집을 나올 때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슬픈 표정이

생각나 먼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한 후 발길을 돌렸다.

가슴을 조이며 문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식탁 쪽으로 발을 옮겼다. 아니나 다를까 미역국은 그대로 있었고 씩씩 거리며 주방을 나오려는 찰나, 식탁 위에는 삐뚤빼뚤 하지만 가지런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동희야, 할머니가 미안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지? 미역국은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버리진 말고 그냥 식탁위에 놔둬. 할머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오늘 늦게 돌아오니까 먼저 자.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때 나는 깨달았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집에서 나갔다는 걸. 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 한 숟가락을 입안에 떠 넣었다. 고소했다. 사랑에 빠져있는 미역, 국 위에 둥둥 떠있는 미역. 비록 한 숟가락이긴 하지만 뜨거웠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나의 눈 앞을 가릴 만큼.

강원 (소학조)

도심 속 텃밭

서탑조선족소학교
김미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 우리 할머니는 어김없이 뒷마당에 있는 텃밭을 가꾸신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신 할머니지만 "텃밭" 말만 나와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셨다.

며칠 전, 할머니 댁에 갔는데 어느 때처럼 집마당 텃밭에 계셨다. "어이구, 어이구, 우리 새끼들. 배고팠지? 내가 밥 줄게." 할머니는 새로 심은 야채들과 말을 하시는 것이었다. (잉?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노망 들었나? 새싹과 말을 한다니!) "할머니." 할머니는 물주는 것을 그만 두고 나를 반기셨다. "우리 손녀 왔네. 할머니가 새로 심은 상추 구경 하렴……. 예전 농촌에 있을 땐 밭이 넓어서 마음대로 심었는데……." 라고 하면서 텃밭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농촌사람인데 자식들 따라 도시에 오셨다. 농촌에 있을 때 보다 더 좋은 집, 좋은 물건을 쓰시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농촌이 좋다고 하셨다. "아, 예전엔 마을친구랑 화투도 치고, 일도 같이 하고, 반찬도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구나." 할머니는 집에서 먼 창 밖만 보실 때도 많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만 보시고 계속 울고, 생기가 없으신 할머니를 위해 엄마께서 옆집 아주머니의 안 쓰는 텃밭을 빌려 할머니께 드렸다. 그 후,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면서 예전의 생기도 되돌리고 활력도 생기셨다.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인 텃밭 가꾸기. 텃밭에 심은 남새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얼른 유기농 채소를 우리에게 한 보따리 싸서 주신다. 평시엔 우울하시던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실 때 얼굴엔 함박웃음이 활짝 피신다.

텃밭 가꾸기.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취미이다. 그렇다. 도심속의 텃밭, 할머니의 마음과 정성으로 가꾼 텃밭, 텃밭속의 파르싱싱한 남새처럼 할머니도 건강하고 활력이 쌩쌩하길 바란다.

할머니, 사랑해요!

장원 (소학조)

길

화신조선족소학교
최지강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도가도 끝없는 길들

나는 무슨 길을 걸을까
가끔 생각에 잠긴 나

선택한 길 돌아보지 못하는 말에
자주 무서움에 잠긴 나

주르르 내리는 창밖의 빗물소리
듣고듣자 깜빡 잠이 들었네

꿔도 꿔도 아직도 달콤하기 만한
그 수많은 꿈들 속에서도

들어도 들어도 신선한
그 쾌락한 노랫소리 속에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려는
수많은 길들

나를 기다리는 것 같기 만한
기묘한 길들

저기저기 창문 통하여
길 저쪽 아파트 안에

쿨쿨 잘도 자는 아이
어머니의 보통하기 만한 자장가 들으며

책속에 빠진 나는
갑자기 길이 생각되는게 아닌가

그 나를 일생동안 괴롭힐
나를 일생동안 기억에 남게 해줄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길

나의 선택이 정확하기를 바라며
다시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 들어간다.

장원 (교원조)

길

심양시조선족3중
조남일

나는 오늘도 둔촌어르신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꽃은 피었다가 지면 그 향기조차 남지 않지만 인간의 향기만은 오래오래 타인의 가슴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무심결에 세어보니 내가 둔촌백일장 행사에 참여해 온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둔촌백일장 참석 애초에 나의 학생은 물론 교편을 잡고 있는 나도 둔촌 이집이란 이름은 금시초문이었고 어떤 분이란 것은 더더욱 몰랐던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둔촌백일장 행사에 참석이 잦아지면서 그이는 외세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렸던 어려운 나날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충효, 신뢰, 의리, 예를 주장하시고 몸소 실천하시며 선구자의 삶을 사신 큰 어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대의 평범하지 않는 일생에 대해 감동을 받았고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부단히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인간적인 매력에 사로잡혔다.

그대는 생전에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생각하였고 부모님을 섬기고 언제나 믿음과 의리를 중요시 했으며 정직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대는 어느 날 갑자기 믿음과 신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하시어 자갈밭처럼 메말라 가고 서로 이익을 챙기느라 바쁜 각박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에 오아시스가 되어 삶에 대한 명견만리의 안목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였고 도시 생활 속에서 부대끼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신뢰의 중요성과 예의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와의 믿음을 쌓아가며 사람과 사람지간의 우정이 바로 사회의 밑바탕이 된다는 도리를 일깨워 주셨다.

애벌레의 몸을 벗지 않으면 나비는 자신을 완성하지 못한다. 어르신은 우리에게 침묵의 채찍 속에 조건 없는 사랑과 뛰어난 감각으로 비운만큼 채워지는 공식을 삶속에 대입 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였고 나에게 걸어온 내 인생길을 더듬어 보며 자신의 모습에 행여 부끄러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 않는지 세월의 이력을 들추어 보게 했으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에게 절하는 몸으로 자신을 더더욱 낮추고 정직함과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마음의 출발을 할 수 있게 시간을 갖도록 했다. 둔촌 어르신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이념을 접하면서 저의 생각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만날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불행을 가슴 아파 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다처럼 넓은 사랑과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도리를 알게 되었으며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비로소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다.

매 한 차례의 둔촌백일장 행사는 나에게 있어 뜻 깊은 마음의 세례였고 시시각각 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하는 인간수업이었으며 귀전에 울림소리 못지 않는 경종이었고 메아리였다.

별이 되어 떠나신 어르신, 그대의 뛰어난 자취와 아름다운 이름. 만대에 길이 길이 전하리!

입상작품(금상)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김경미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박려홍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정옥림
(고중조) 심양시조선족2중학교	리동건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백문혜
(고중조) 심양시조선족1중학교	안혜령
(초중조) 혼남구조선족학교	김주현
(초중조) 심양시조선족6중학교	정우성
(초중조) 심양시조선족2중학교	김송비
(초중조) 영구국제학교	리례본
(초중조) 심양시조선족3중학교	김연비
(초중조) 심양시조선족3중학교	리나용
(초중조) 심양시조선족6중학교	정승수
(초중조) 심양시조선족6중학교	김가현
(소학조)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항애
(소학조) 화평구만융실험학교	차 옥
(소학조) 우홍구오가황조선족소학교	김나림
(소학조) 화평구서탑조선족소학교	고주희
(소학조)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경택
(소학조)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리우향
(소학조) 심북신구조선족소학교	리지현
(소학조)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강영주
(소학조) 화평구서탑소학교	김연화
(소학조) 혼남구조선족학교	채춘옥

여 백

길

심양시조선족1중
김경미

인류사회에 처음에는 길이 없었다고 한다. 모두 풀과 나무였던 당시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걷기 시작하다보니 그게 자연스레 길이 되었다고 한다. 당신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곳으로 통하는 길을 찾았는가?

로마로 통하는 길은 단 한 갈래만이 아니라고 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높은 탑에 올라갔다. 그리고 우선 아이에게 물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은 몇 갈래냐고. 아이는 당연한 듯 자신이 늘 다니던 그 한 갈래의 길 밖에 없다고 했다. 아빠는 이제 아이더러 아래로 내려다보라고 했다. 거미줄 같이 분포된 로마로 통하는 길은 단 한 갈래만이 아니었다. 시작과 끝은 같지만 지나야 하는 풍경들과 겪어야 하는 일들은 모두 다른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곳으로 통하는 길은 단 한 갈래만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여행을 시작하느냐는 완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사람과 사람지간에 길을 찾아내고, 그 길 위에 모두가 서로에게 갈 수 있도록 크게 만들고 싶다. 어쩌면 이건 단지,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17살 소녀의 바람 뿐 이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으로 간다면 그곳은 분명 길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내가 본 세상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만 같다. 더 이상은 우리가 아닌 너와 내가 되고, 오직 편견과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눈 빛 조차 주기 점점

인색해지는 우리가 아닐까? 어쩌면 사람과 사람들 지간에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도 높은 벽이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가끔은 그 벽을 허물고 다가가고 싶지만, 변해버린 자신과 세상이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 이들에게 나는 큰소리로 알려주고 싶다. 벽을 허물고 용감히 다가가라고, 첫 발을 내딛을 그 1%의 용기만 있다면, 나머지 길은 분명 그도 당신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지금 17살의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듯,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길 위에 내가 있고, 길의 끝에는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난 달린다. "내일은 조금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미역국

심양시조선족1중
박려홍

두근두근 금요일이다. 하루하루가 바쁜 학교생활을 잠시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가는 금요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 3월 6일이다.

너무나도 설레는 발걸음으로 집에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의 나라로 빠져들었다. 창 밖을 보니 밖의 세상이 왜 이리도 예쁜지. 모든 것이 내 눈에 그저 아름다워 보였다. 집에 들어가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케이크였다. 비록 미역국은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다. 날 위해 정성스레 준비해준 생일상, 그런 엄마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다. "요즘 새집 이사 오느라 이것저것 바빠서 미역국은 못 끓여 줬네. 괜찮지?", "그럼, 난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이라서 그냥 좋아." 예전에 생일은 늘 미역국을 먹었다.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이다. 엄마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은 적이 별로 없었다. 생일이면 미역국을 꼭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 우리가 태어난 날에 처음 어머니가 먹은 음식은 미역국이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의 생일상에서는 미역국이 필수다. 솔직히 나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그 아쉬움보다 엄마랑 단둘이서 생일을 지낸다는 설렘이 더 컸다. 엄마랑 있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미역국은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달라졌다. 미역국 뿐만 아니라 엄마 그 자체

가 사랑이라는 걸. 비록 그날 나의 생일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못 먹었지만 케이크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달콤함을 느끼게 하였다. 꼭 생일날에만 미역국을 먹는다는 편견을 버리고 싶다. 언제나 어디서나 끓일 수 있는 미역국이다.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만 있다면 시시때때 먹을 수 있는 미역국이다.

미역국의 맛은 평범하지만 그 따스함이 영원히 맘속에 남아있다. 엄마의 사랑도 미역국과 같다.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 미역국을 못 먹는 생일날이 있지만 엄마의 사랑은 늘 영원히 존재한다.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 할 수가 없다. 생일날만 되면 미역국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난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된다. 미역국보다 따뜻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다.

지금도 엄마가 한국에 계신다. 남들이 미역국을 먹는 것을 보면 내 가슴 한 구석에서 통증이 올라온다. 엄마가 보고싶다. 미역국이고 생일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다. 엄마가 내 옆에 있는 나의 하루하루는 다 생일이다.

미역국은 생일날의 밥상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은 미역국보다 더 크다. 아주 많이.

길

심양시조선족1중
정옥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론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시시각각 숨을 쉬고 있는 듯 우리는 시시각각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왜 그런걸까?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성숙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차가 된다. 승용차는 도로를 선택하게 되고 열차는 철도를 선택하게 되며 윤선은 바다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다. 자신에 알맞은 길을 선택하여야만 그의 가치를 발휘 할 수 있고 의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억지 부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걷고 싶은 길만 걷게 되면 그는 결국 공로에서 '전복'되고 바닷물에 '삼키고' 말 것이다.

인생은 밝은 것이나 또한 굴곡적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성공을 거둘 수 없든 좌절과 시련을 많이 겪을 것이다. 온갖 간난신고들을 한 번에 겪고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막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느님이 당신의 문을 닫아줬으면 반드시 창문을 하나 열어준 듯 우리의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길은 간난신고 뒤에 숨은 성공으로 통하는 길이다. 명심해야 한다. 용기와 신심을 잃을 때 우리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꼭 어디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길을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일을 해서는 이럴 경우가 있다. 상대방과 같이 일을 시

작하였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이 거둔 성과가 많은가? 사실 일을 하는 것과 인생을 사는 '길'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총명하게 여러 가지 길을 능란하게 판별 할 줄 알아야 성공으로 통하는 평탄한 도로에 설수 있다. 아니면 구불한 작은 길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정확한 길을 선택해야만 인생을 더 순조롭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걸림돌 하나 없이 순탄하게 인생을 누린 사람은 없다. 우리는 자신에 알맞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장애물이 생길 때 주의를 살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길 가운데서도 효율 높고 평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길의 앞에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물이 설치되었다고 원점에서 머물기만 하면 더 훌륭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 길은 많으나 자신에 알맞은 정확한 선택을 못하면 우리의 아까운 생명만 허비할 것이다.

금상 (고중조)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2중
리동건

얼마나 긴긴 세월을 거쳐야 그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그대 얼굴. 오늘도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는 나, 그대 얼굴 보기를 기다리며 가슴 벅찬 하루를 연다.

내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란 미래의 내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이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는 고지식 분자가 될 것이며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정복차림을 한 직장인이 된다. 좀 더 지나 한 아이의 아빠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 변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하루를 시작한다. 미래의 멋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지금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하루를 시작한다. 미래의 멋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지만 집에서는 한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의 부모나 다 그럴 것이다. 자식들 뒤에서 매일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한 번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늘 자식들이 걷는 길 도중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해야 할 임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앞 날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길이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공부는 배워도 배워도 끝

이 없다. 인생의 삶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되며 끊임없이 배워야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릴 적 선생님들이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선생님'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자신이 지망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며 고지식 분자가 되기 위해 전국 학생과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하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이 장래에 어떤 사람으로 될지 자신도 확정하기 힘들다. 인생의 길에는 산비탈 같은 험한 고비를 건너야 만이 인생의 조금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얼굴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얼굴이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보이지 않는 얼굴은 쉽게 못 볼 얼굴일 것이다. 지척에 있으면 서도 보지 못하는 얼굴. 끝내 주름이 많은 얼굴이 되어 매일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여야 하는 얼굴. 주름 한 올 한 올 생겨 죽을 때 까지 볼 수 없는 얼굴, 보이지 않는 얼굴은 성공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래의 모습은 자기가 그리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백문혜

"나 아파……. 나 힘들어……. 너무 외로워……. 누가 와서 날 좀 구해줘……. 제발." 들린다. 비명소리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나의 외침이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온다.

나는 착한 아이다.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엄친아'이다. 엄마, 아빠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에게는 근심과 마음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며 엄마와 아빠는 늘 나를 대견스럽고 착한 딸이라 하신다.

언제부터일까, 어디서부터일까……. 나는 줄곧 감정을 감추며 살아오게 되었고, 가면에 얼굴을 파묻고 살았던 걸까? 이제는 나도 내 진짜 '얼굴'을 모르겠다.

아……. 그때부터였을까……. 아빠가 날 두고 한국으로 가시던 그 날부터 난 가면을 쓰게 된 것 같다. 기억의 필름을 다시 되감아 시작을 찾는다……. 그해 난 6살이었다. "아빠가 한국에 간데……. 날 두고 간데……. 오랫동안 못 볼거야……." 이런 생각과 불안이 내 6살의 어린 마음을 맘껏 갈겨놓았다. 근데 아빠가 가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 착하지? 아빠 없을 때 네가 엄마 지켜줘야해! 울지 말고 잘있어……. 아빠 올 때 까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지, 난 착한 아이였지. 난 울면 안되. 난 약해지면 안되. 지금 아빠를 붙잡으면 안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조용히 흐른다. 그게 시작이었다. 늘 착한 아이이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했고 또 아빠와의

약속처럼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가면을 써오게 되었다. 마음이 지끈하고 아려온다.

거울을 본다. 난 웃고 있다. 난 내게 묻는다. "너 진짜 웃고 있니?" 보이지 않는 얼굴은 대답한다. "나 아파, 슬퍼, 힘들어, 외로워……." 라고.

내가 착한 아이를 그만해도 될까? 마음 놓고 때론 울고 화를 내도 되는걸까? 가면에 가려진 얼굴이 내 마음과 함께 썩어져 갈 듯하다. 이대로 두면 싫다. 너무 싫다. 이젠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 이젠 '진짜' 울고 싶어. 가면을 벗어야 해.

강렬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머리로 든다. 나도 해방하고 싶다. 나도 해방하고 싶다. 나도 내 진심을 비춰 보이고 싶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 힘들겠지. 그래도 난 내 보이지 않는 얼굴을 공개하련다. 조금씩 조금씩 가면을 뜯으며 아프겠지만 난 할 것이다. 아니, 할 수 있다.

"나 아파……. 나 힘들어……. 너무 외로워……. 누가 제발 와서 구해줘……." 보이지 않는 얼굴이 외친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구해줄게."

오늘부터 난 새로 태어난다.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1중
안혜령

오늘 아침엔 어쩐 일인지 짙은 안개가 꽉 끼었다. 안개가 낀 날이면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야 맘속의 눈이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안개 그 신비함과 몽롱함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와의 추억이 몰려온다.

기억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매번 집안 모임이 있을 때 마다 그녀는 사라지곤 했다. 떠들썩거리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있으면 방에서도 유독 그녀의 품만이 어릴적의 나에게 있어서 제일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를 찾으러 주방으로 향한다. 역시 주방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었다. 땀벌창이 되어 요리를 할라, 술 안주를 준비 할라, 눈코 뜰새 없이 바삐 돌아치며 심지어 문 앞에 서 있는 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용히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의 빠짐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 그녀의 빠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다.

매일 아침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면 나를 반겨주시는 분은 항상 그녀가 아닌 할아버지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일부러 신발끈을 맸다 풀었다 다시 매거나 교복을 느릿하게 입으며 시간을 끌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 한번 보기 참 힘들었다. 분명 침대를 정리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하여튼 집안일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 때로는 그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때에

쉴새 없는 그녀가 너무 가슴 아팠다.

어쨌든 그녀의 조용하고 은밀한 사랑 속에서 7년 동안 무사하게 컸다. 그러자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런 그녀의 떠남이 안겨준 고통을 감당했어야 했다. 노인정에서 나눠준 뚜껑도 없는 음료를 손녀딸한태 가져다 주겠다고 먼 길을 쏟을까봐 조심조심 걸어서 음료를 내 손에 쥐어주고 서야 만족한 웃음을 띄셨던 할머니가 나의 곁을 영영 떠나셨다. 생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얼굴이 지금은 영정사진에서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계신다…….

짙은 안개가 점점 흩어지고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된다. 그녀의 얼굴도 안개 따라 눈앞에서 흐려진다. 이젠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생겼던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 그리 아프지 않다. 이상하게 그땐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아니, 자세히 마음을 들여 본적이 없었던 얼굴이 이제는 오히려 더 똑똑히 보인다. 그땐 그냥 살아질 줄 알았던 할머니가 지금은 오히려 몸속 깊이 배겨 기억의 일부분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금상 (초중조)

도심 속의 텃밭

혼남구조선족학교
김주현

우리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하나 있다. 상추며 깻잎이며 토마토며 파릇파릇 싱그럽게 쑥쑥 자라고 있다. 숨 막히는 자동차 연기와 공장의 매연에 사람들이 병들어 갈 때쯤 우리 집사람들을 지켜준 호위무사, 우리 집의 텃밭이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텃밭은 하나 둘씩 적어지고 있다. 채소를 사려고 하면 영 마음이 놓이지 않고 키우려고 하면 귀찮은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요즘은 '웰빙시대'이다. 우리 집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보호막'이 필요할 때 쯤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셨다. "우리 집도 한국사람들 처럼 텃밭을 가꿔 보는게 어때?" 이 말을 들은 우리 집 가족들은 호불호가 갈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심히 좋아하는 눈치셨다. 하지만 나와 동생은 반대하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건의는 아니었다. 비록 귀찮기는 하지만 채소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뿐더러 돈을 아낄 수도 있었다. 1석 2조 아닌가? 나는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좋아. 주현이 까지 동의 했으니 내일부터 채소 심기다!"

그 다음날, 우리는 온가족을 총동원해서 우리 앞마당에 채소를 심었다. 다 심은 후 텃밭을 보니 참으로 귀엽고 싱그러웠다. 그 후부터 우리는 고기를 구워먹을 때 쌈채소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더욱 많은 종류의 채소를 심어 우리 텃밭을 더욱 아름다운 색깔로 가꾸고 있다.

우리 집의 호위무사, 텃밭. 거무칙칙한 이 도심을 초록 빛깔로 물들이는 텃밭. 오늘도 나는 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금상 (초중조)

길

심양시조선족6중
정우성

당신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길고 힘든 비탈길
짧고 쉬운 평탄한길

비탈길을 택하면
보람찬 성취감을
맛 볼 것이고

평탄한길을 택하면
무의미한 시간 낭비
뿐일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은
참으로 비탈길 밖에
딴 길이 없다고 합니다.

금상 (초중조)

보이지 않는 얼굴

심양시조선족2중
김송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쓴 사람들이다. 진실한 감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마다 얼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다. 모두들 보이지 않는 얼굴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감정을 담고 있다.

할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얼굴을 본 것은 내가 4학년 때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강한 모습을 보이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 할 때 할아버지가 뒤뜰에서 우셨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거짓말이라고 여겨 직접 뒤뜰에 가보았다.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다가 <나의 고향>을 불렀다. 생전에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였다. 그 때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맑은 이슬 두어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진정한 할아버지의 보이지 않았던 '얼굴'을 보았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철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사 이별 속에서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구나! 보이지 않는 얼굴 속의 유수 같은 할아버지의 마음,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 속에는 사랑하는 감정, 질투의 감정, 미련의 감정도 담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얼굴 속에 미련을 담았다. 머나먼 이국타향에서 나의 학비를 벌어주시는 위대한

분, 단단한 유리조각 같은 이분이 처음으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나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셨던 분이 이렇게 연약한 면을 보여줬을 리가 상상조차 못했다. 눈물을 흘리신 원인이 고작 내 생각이라서…….

우리에게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얼굴을 갖고 있다. 의외로 감정을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굴. 당신의 진정한 얼굴 뒤에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을까?

금상 (초중조)

길

영구국제학교
리례본

나는 일곱 살 때 중국에 부모님을 따라 들어오게 되어서 중국 한족학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공부하게 되었다. 중국학교에서 공부한지 만 9년째이다. 중국의 역사, 정치, 지리 등 모든 과목을 수학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리책을 보다가 가슴 아픈 단어를 보게 됐다.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 된 것이다. 그 후, 난 나의 길을 정하게 되었다.

나의 길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지도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나올 때도, 한반도의 중간에 비무장지대를 볼 때도, 나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린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여 통일의 꿈을 이루겠노라고 마음 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알기로 '반크'라는 사이버 단체가 열심히 국제사회에서 애국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애국 조직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잘못된 표기들이 수정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키우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의 길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다. 나는 외교관이 되어서 미래 한국의 아이들이 통일된 나라에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애국심이 자라도록 가르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는 것이 내 길이다.

1919년,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을 세계에 선포하셨던 애국지사들이 지켜온 나라를 되찾은 것이 나의 길이다. 올해, 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 나는 무오독립선언문[1]을 낭독하게 됐다. 그동안 나와는 상관없었던 통일이 나의 사명으로 다가왔다.

오늘 우리는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전쟁, 분단과 이별의 아픔과 눈물, 이제는 우리가 그 쓰리고 상처 난 마음에 약을 바르고, 눈물을 닦을 때이다.

민족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나라사랑에 관심 없는 신세대 청소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 할 때이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한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길을 걸어 대한민국을 OECD회원국가 중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 1위로 만들 것이다.

이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

1) 대한독립선언문,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 하여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하며, 작성자는 조소앙(趙素昻)이라고 한다.

길

심양시조선족3중
김연비

저는 오늘 기쁘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둔촌백일장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 생에 둔촌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인연이 아니라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라는 길을 걸으면서 그대의 인간적 매력에 탄복하고 감동을 받았으며 혼탁한 나의 마음은 그대에 의해 한 번, 또 한 번 정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뛰어난 감각으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 가신 어르신. 더욱이 우리 겨레에 이런 자호감[2]을 주신 어르신. 그 분이 바로 둔촌 이집 선생님 이십니다.

나에게 둔촌이라는 뜻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둔촌할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금 한광주리를 주는 것이 경서 한 권 배워주는 것보다 못하다." 자식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물질적 재산인 금보다 무형의 재산 지식이 더 값지지 않습니까?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불과 7,8년 전만 해도 나의 고향은 조선족 30여 가구가 오붓이 모여 사는 산 좋고 물 맑은 시골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소꿉친구들이 있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의 부모님은 큰 돈을 번다며 서둘러 짐을 싸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겨놓고 어딘가로

2)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연변 사투리.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약없는 생이별을 해야 됐고 그때로부터 나는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옛 고향의 이미지는 전설 곳 이야기의 한 장면이 돼버렸고 이젠 동화 속에서만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금광주리보다 경서가 더 중요한데…….

부모님들은 정을 모른가 봅니다. 오래된 우정도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가 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둔촌의 길과 인연이 있는 것인지 아님 때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그분과 옷깃을 스치지 못했나 봅니다.

나는 그대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고향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립니다. 친구들의 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길을 걸으면서 효를 느낍니다. 나를 위해 타국으로 갔다는 것을 그대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둔촌할아버지. 하루 빨리 우리 앞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난 여전히 그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뜻을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터득하면서…….

금상 (초중조)

길

심양시조선족3중
리나용

어느덧 류수같은 시간이 흘러 둔촌백일장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둔촌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다 둔촌할아버지의 사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길에 씨를 뿌리고 정성스레 가꾸어온 결과 뿌리가 내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둔촌백일장에 참가하면서부터 진정한 효도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알았고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예의의 필요성을 더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둔촌어르신이 강조한 사상을 접수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인간세상은 다른 사람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만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안전도 자유도 행복도 없는 한 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암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은 물론, 오늘처럼 사회의 발전과 번영이 가져다준 결실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둔촌할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다시 밟아 보면서 효라는 열매를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둔촌 어르신은 생전에 효가 빛났고 아름다웠으며 효를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며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효

도를 꼭 잘 할거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번 내 생일이 되면 어머니는 맛 좋은 산해진미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생일 케이크까지 선물해 주시면서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허나 오늘 14살이 되도록 엄마, 아빠한태 장미꽃 한 송이는 고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도 건네 본적도 없습니다. 둔촌할아버지가 부모님께 효도함을 비교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아도 얼굴이 뜨거워지며 저도 모르게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효도하면 되지 다 커서 효도하면 되지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오늘 둔촌백일장 10주년을 맞으면서 나도 효도의 진정한 참 뜻을 또 한 번 느껴 보면서 다시 한 번 신들메를 조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그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내 잠시 뒤엉킨 실을 정리하느라 생각이 흔들린 셈 치고 이제부터라도 둔촌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 부모님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노라!

길

심양시조선족6중
정승수

인생은 길이다. 비록 흘러가는 긴 긴 세월 속에서 잠시 걸었다 100년도 못가고 떠나야 하는 길이지만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이 길의 명제주제이기도 한다.

인생의 길, 이건 마치 하나의 큐브처럼 시시각각 모습을 바꾼다. 때로는 평탄한 큰길 마냥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가끔 길을 가로막는 큰 돌멩이가 곤란이 될 것이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속에 갇혀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간 희망의 여명이 동쪽 하늘에서 비춰 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는 이 길에서 간난신고를 감당하는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고 가야할 곳은 가야되지 않는가.

출생, 성장, 쇠퇴, 사망. 누구도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의 법칙아래 아무도 개변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 또 하나의 봄을 보낸다. 그리고 그 누구도 똑똑히 계산 할 수 없는 득과 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하나, 또 하나를 맡아 가는 것도 우리들의 특권이 아닌가. 비록 좌절이 있다 해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길 자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인생은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듯하지만 항상 부딪히면서 성장하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다. 영웅들이 걸었던 인생의 길, 어느 한 갈래가 평탄한 것일까.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 무수한 곤란을 파헤치는 것이 강인함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것은 인생이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저기 저 푸르른 축구장을 바라보아라. 그건 강인함의 상징이 아닌가? 자기의 상처를 무릅쓰고 슛, 골을 날리는 자들, 모든 것을 무릅쓰고 골문을 지키는 자들, 이 또한 인생이 가르쳐준 성장의 의미가 아닌가. 이것이야 말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은 길이다. 끝이 있지만 무한히 성장하게끔 할 수 있고 힘을 지닌 길이다. 먼저 어디서 위험과 곤란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길에서, 오늘도 우리는 걷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길을 걸으면서 부딪히면서 성장한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금상 (초중조)

도심 속의 텃밭

심양시조선족6중
김가현

힐링생활이 유행인 요즘, 도심 속에서는 텃밭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느림'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도시, 그 속의 텃밭이란 일상 속 한 잔의 커피와도 같은 여유가 아닐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빠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언가에 쫓겨 빨리, 더 빨리 앞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비몽사몽한 얼굴로 머리를 빗고 밥은 대충 대충, 그리고는 등교를 한다. 학교에선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엔 숙제를 쓴다. 하교 후에는 책 속에 파묻혀 밤을 샌다. 그렇다. 여유란 찾을 수 없는 퍽퍽한 생활이다. 꽃다운 나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생기 없는 중2이다. 이런 생활 속에서 텃밭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상상을 해본다. 나에게 정말 자그마한 텃밭이 생긴다면……. 분명 주말이 행복해질 것 이다. 학원이 아닌 텃밭으로 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여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저기 흙이 묻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텃밭이 생긴다는 것, 공부가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성적이 잘 나와 얻는 성취감과 내가 심은 채소를 먹을 때의 뿌듯함은 분명 다를 것이다.

나의 지금 현실과는 너무 먼 얘기 같다. 한 학기를 꽉 채운 시험, 매일 매일이 시험기간이다. 그런데 텃밭이라니, 텃밭을 가질 순 없지만 분명 나의 생활에 텃밭 같은 존재가 생길 순 있을 것이

다. 아마 운동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은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나는 천천히 여유의 의미를 더듬어 찾아가고 있다.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던 도심 속 텃밭 같은 여유를 갈망하게 됐다.

도심 속의 텃밭,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금상 (소학조)

미역국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향애

오늘도 나는 엄마를 그린다.

나도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부러움 없이 응석을 부리며 곱게 자랐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엄마와 아빠는 돈 때문에 거의 날마다 싸웠다. 마지막엔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내가 5살 때 엄마는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그제야 나는 엄마가 곁에 없는 삶이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큰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너희 어머닌 재가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어." 내 마음은 부스러질듯 아프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의 생일이었다. 학원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무도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실망한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갑자기 길 저편에서 한 아줌마가 나에게 손을 흔들면서 헐떡헐떡 달려왔다. "향애야!" 그 아줌마는 다름 아닌 나의 어머니였다. 순간 나는 괘씸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다. 정말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었다. 어머니가 해준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는데 기분이 묘했다. 처음 먹는 미역국이 짭쪼름 했다. 나의 눈물이 국 안으로 떨어졌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어머니라고 부르는것 조차 어색했다. 어머니가 낯설었고 어머

니와의 간격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예상대로 아버지의 빈자리 또한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점차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겠지? 재결합해도 행복해 질수 없다면 서로 새로운 짝을 만나야지……." 나는 부모님의 재결합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부모님이 모두 새 반쪽을 만나 행복해 지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나를 보는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다. 그 후로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또 사라졌다. 그리고 전화 한통도 없었다.

오늘도 나는 어머니를 그리며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어머니, 날 버리고 간 것이에요? 아니면 돈 빌리러 간 것이에요? 나는 아직 그 미역국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먹었으면…….

금상 (소학조)

보이지 않는 얼굴

화평구만융실험학교
차옥

"히히……, 저리 비켜……."

"정신병 할머니 또 왔네! 차옥이네 할머니잖아……." 애들이 복도에 몰려들어 흰 머리카락 휘날리며 물걸레질 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는 오늘도 어떻게 보안 아저씨를 뿌리치고 들어오셨는지 모른다. 외할머니는 종종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런 소동을 피우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몇 년 전부터 외할머니는 치매란 병에 걸리셨다. 그래서 자신이 손수 키우신 나도 못 알아보신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어머니 즉, 자신의 딸만 잘 알아보시는 것이다. 저녁만 되면 외할머니는 걸상을 가지고 층집 아래로 내려가신다. 그리고 현관문 아래에 앉아서 어머니가 다니는 길 쪽만 응시하며 중얼거리신다.

"내 딸 왜 아직도 안와? 올 때가 되었는데……."

하학[3] 후 이런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참 창피스럽다.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가자고 부축하면 외할머니는 떼를 쓰면서 나의 손을 홱 뿌리치신다.

"저리가. 내 딸 기다릴거야! 학교에서 올 때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모습만 나타나면 얼굴에 웃음 꽃을 띄우고 반기신다.

3) 학교에서 그날의 수업을 마침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감자를 삶아 놓았다."

외할머니는 마치도 엄마닭이 병아리 챙기듯 했다. 그러면 난 어처구니가 없어 머리만 흔든다. 지난번 5.1절에도 그렇다. 먼 곳에 계시는 손님이 오시자 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삐 움직였다. 잠깐 사이 상다리가 부러지듯 음식을 차렸다. 이때 외할머니의 행동은 아주 수상했다. 마치 사탕을 훔치려는 아이처럼 밥상 주위를 살피고 또 살피셨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주의 하지 않는 틈을 타 음식들을 호주머니에 슬쩍 넣으시는 것이다. 집 식구들은 경황실색했지만 전혀 못 본 척 했다. 오직 외할머니만 자신이 고명하다고 생각됐는지 싱글벙글 하셨다.

친척들이 상에 빙 둘러 앉으셨다. 외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당겼다. 외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듯 몸으로 남들의 시선을 가로 막았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의 음식을 꺼내 슬그머니 어머니의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다.

"내 딸, 어서 먹어라. 공부하느라 배 고팠지?"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외할머니의 이상한 웃음을 보시다가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이 관경을 지켜보던 주위사람들도 눈물을 글썽했다.

비록 외할머니의 정신은 이미 질병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있지만 부서질 줄 모르는 모성애는 영원히 변함이 없었다.

금상 (소학조)

보이지 않는 얼굴

우홍구오가황조선족소학교
김나림

나에게는 귀엽고 깜직한 동생이 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동생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그리기도 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할머니를 그린 적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동생 방에서 한 장의 그림을 봤다. 그 종이에는 얼굴이 없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다. 여자는 머리가 동그랗고 머리카락이 길며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머리가 길쭉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아마 나를 그린 것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는데….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남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호기심에 재미있게 컴퓨터를 하고 있는 동생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동생이 한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여자는 우리를 낳아 주신 어머니이고 그 남자는 우리의 아버지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큰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때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보고 싶어 운적도 있지만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언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너무 속상합니다. 하루 빨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금상 (소학조)

도심 속에 텃밭

화평구서탑조선족소학교
고주희

나는 그때 도심 속에서 텃밭을 가꾸던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둘도 없는 추억이 되었기에….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9번째로 맞은 생일. 모두들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어 정말 기뻤다.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엄마가 나에게 손바닥 만 한 작은 상자를 건네 주셨다.

"엄마, 이게 뭐에요?"

"이거? 글쎄! 뭘까?"

"에이. 엄마. 뜸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 네?"

그러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궁금하면 열어보렴."

상자 뚜껑을 연 나는 어리둥절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 이거 씨앗 아니야? 무슨 씨앗이지?"

"그거, 고추씨란다."

"고추? 설마…. 생일 선물은 아니죠?"

"맞는데? 후후…. 잘 키워보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저 보고 키우라고요? 아니…. 왜… 휴. 알았어요. 도전해 볼게요."

나는 상자를 들고 풀이 죽어 터벅터벅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털썩 엎드려 누워서 맥이 빠진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아니, 엄마는 진짜! 생일 선물이 이게 뭐야? 그리고 오늘은 12월 19일! 한창 겨울바람이 기승스레 불어대는데 씨는 무

슨!"

한참 동안 투덜거리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 졌다. 나는 경사경사 컴퓨터 앞으로 가서 고추 키우는 법을 검색해 보았다.

다음해,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한 봄날, 나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고추씨를 발견했다. 정신이 퍼뜩 들어서 허겁지겁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흙! 흙!"

나는 흙과 스티로폼 상자, 고추씨, 물뿌리개를 주섬주섬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흙을 넣고 씨를 뿌리고 물도 뿌려주었다. 기분이 정말 개운했다. 햇빛도 따뜻하니 일석이조였다.

그 후부터 나는 옥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새 나온 새싹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고추들도 쑥쑥 자라났다. 나는 나무젓가락을 꽂고 고추나무가지가 반듯하게 자라도록 끈으로 묶어 두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채소를 키우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어느 날 아침,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탁에 내가 정성들여 애지중지 키운 고추들이 놓여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눈이 등잔불 마냥 휘둥그레졌다. 드디어 맛볼 수 있게 되다니! 하나를 집어서 먹어보니 아삭아삭 맛있었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작고 볼 품 없었지만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한 순간 나는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감동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할 말을 잃었다.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주르르 얼굴을 타고 흘러 내렸다.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왜 울음이 나오는지…. 나는 한참을 울다가 모르는 사이 잠에 빠져버렸다.

그렇다. 나는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나에게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꿈과 희망이라는 흙을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이라는 물을 뿌려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쓰러지려 할 때 격려와 용기라는 젓가락을 세워 기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엄마 덕분에 아름다운 고추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 일은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에요!

금상 (소학조)

보이지 않는 얼굴

화평구만융실험학교
김경택

"네가 우리집의 기둥이고 희망이다."

엄마는 늘 나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선 한 번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의 형님 뿐입니다. 일 나갔다가 집에만 들어서면 형님, 잠을 자다가 형님…. 그런 엄마에게 난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형 밖에 몰라? 난 엄마 아들 맞아?",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있니? 그래도 엄마에게는 형님 손가락이 제일 아프구나."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시며 내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엄마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나보다 열 다섯살 많은 27살입니다. 키는 180cm이고 피부는 희고 눈도 부리부리하여 영화배우 뺨칠정도로 미남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은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이 유치원 때 길가에서 놀다가 개한테 심하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심한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뇌수술을 몇 차례나 받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일은 형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3학년 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외식이라 나는 신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강아지를 데려와 형님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상이 엎어지고 채소 그릇들이 와당탕하며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나의 형님을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 아이들의 눈을 가리는 사람 등 우리가족에게 눈총을 줬습니다. 우리가족은 죄지은 사람처럼 서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외식을 할 때도 형님이 편하고 안전한 곳이라야 갈수 있습니다.

형님은 분명 엄마의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보이지 않는 얼굴을 보살피고 또 보살펴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상 (소학조)

미역국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리우향

"향아, 일어나!" 오늘도 나는 할머니의 부름 소리에 꿈나라에서 펄떡 일어났다. 오늘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날이다. 일어나기 바쁘게 서둘러 준비하고 학교로 향했다. 아~ 밖으로 나가니 따스한 햇빛에 신선한 공기, 참말 좋은 날씨였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 그야말로 '짱!' 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다.

"딩동댕!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의 뜻 깊은 학교생활이 끝났다. 그런데 할머니를 어떻게 찾아도 할머니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셔서 안 오신 건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별의별 생각을 하며 할머니를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향아! 향아!" 바로 내가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였다.

"할매!" 할머니는 나를 품에 끌어안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손녀! 많이 기다렸어? 할머니가 깜빡 잊고…. 나도 많이 늙었나봐."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향기로운 미역국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할머니가 나에게 정성으로 미역국을 끓이느라 늦은 것이었다. 이 일을 통하여 할머니가 나를 위해 또 한 번 고생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비록 저 먼 일본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못 받았

지만 나를 위해 고생하는 할머니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꽉 채워 주셨다.

할머니께서 나에게 준 생일 선물은 단 한 그릇 미역국이지만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난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금상 (소학조)

길

심북신구조선족학교
리지연

사람들 마음 속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

때론 게임이 나를 부르고
때론 고난과 슬픔이 나를 부르고
때론 양심을 버리고
나를 매혹시키네.

꿈을 향해 달리는
내 맘속 그 길은
오직 하나 뿐

아파도 힘들어도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리라.

금상 (소학조)

길

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강영주

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다. 다른 이해는 그 사람들의 부동한 경력을 암시해 준다. 부동한 경험은 부동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해준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찾아 헤맨다. 내 생각에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현실의 길, 다른 하나는 이상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이 두 글자는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다. 한 길에서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저 새의 이상은 왠지 영원히 이런 푸른 하늘에서 자유로이 날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이상의 길을 걷다보면 수많은 모욕과 괴로움도 있고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이건 다 길의 끝으로 가는 한 시련일 뿐인 것이다. 이상은 인생의 목표이고 힘을 내게 하는 동력의 비결이고 자신을 얻게 하는 것 같다. 만약 사람이 이상이 없다면 마치 넓고 푸른 아름다운 바다의 목표가 없는 한 쪽의 벽일 것이다. 난 이상이 비 온 뒤의 무지개라고 생각된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 마다 그때 이겨낸 많은 폭풍비가 생각 날 것이다.

현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잔인한 현실을 겪었을 것이다. 현실과 꿈 사이에는 한 층의 벽만 있는 것 같았다.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으며 자기한태 닥쳐온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얻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로 받아드

리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언젠간 그런 무서운 현실은 지나가고 다시 그대를 더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길. 난 알고 있다. 이 길은 끝까지 나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오직 나 자신이 자기와 같이 이 길의 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길에서 난 마치 하나의 유령이 떠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걸. 하지만 나를 충고해줄 필요는 없다. 이건 내가 걸아 가는 길이기에 긴긴 외로움이 있더라도 제가 이 길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가게 해 줘요.

금상 (교원조)

보이지 않는 얼굴

화평구서탑소학교
김연화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학생 작문책을 보다가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려다 보았더니 창밖에서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비오는 날이면 방안의 분위기는 더욱 공하고 호젓해진다. 그럴 때면 나는 그분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분은 영원히 내 마음속의 우상이시다. 작은 키지만 서글서글한 눈매, 까맣고 촘촘한 눈썹을 가진 그 분은 항상 눈 같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분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유별나셨다. 나의 모든 불만, 불평을 받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거절 한 번 없이 해주시는 그분, 더울세라 추울세라 가리지 않고 매일 멀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거리지만 왔다갔다 하며 저녁밥을 챙겨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이 이 세상 끝까지 갈수 있을것 같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분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학교 내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또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곤 하셨다. 그러다가 같은 잘못을 여러번 저지를 때면 한없이 상냥하던 그분은 자못 엄숙해지면서 나의 잘못을 제때에 따끔히 지적해 주곤 하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항상 몸이 약한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며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다운 사랑을 듬뿍 주셨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병석에 누워 꼼짝 못하게 되었

다. 홀쭉 여위어 손목이라는게 내 손목보다 더 가늘어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은 매어지는 듯하였고 눈물은 줄 끊어진 구슬 마냥 흘러내렸다.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라고 아버지의 인자하면서도 엄격하시고 지극히 관심해 주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슬픔에 목이 메었다. 이젠 내가 효도해야 함에도 나는 하루도 효도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나는 그저 불효자라고 내 자신만 책망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던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로 둥둥 저 세상으로 떠나가셨다.

창밖에선 여전히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다. 나는 가만히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계속 작문수개를 다그치고 있었다. 학생의 작문책에서 빨간펜이 달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나는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영원히 외롭지 않고 뒷심이 날이 감에 따라 든든해진다.

금상 (교원조)

길

혼남구조선족학교
채춘옥

젊음의 꽃가지를 교단에 올려 놓은지 어언 19년 세월, 그 세월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 세월 속에서 언제나 함께 웃어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했다.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인생의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정이 쭉쭉 들고 게다가 내가 그 속에서 점차 성숙의 계단으로 오르는 감을 느끼게 된다.

초중부에 있던 내가 소학부 선생님과 다정히 어깨걸고 공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옛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타향도 정이 들면 정이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두터워가는 정, 그 정을 나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번 학기만 해도 학교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치르게 되었다. 그 때마다 나는 크나큰 사랑의 손실, 사소한 일들에서 받은 무수한 잔잔한 감동, 이것들을 느낄 때 마다 가슴 한복판이 뭉클함과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언젠가 "혼남구 음악학과 청과 현장회"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가 있기 전날 임무 중에서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었다. 소학부 도서실, 그날따라 도서관리 선생님이 학교에 청가를 냈었다. 유리를 보니 얼룩이 가 있었다. 하지만 상과하고 여기저기 동동대다 보니 돌볼 겨를이 없었다.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 애는 열이 나서 펄펄 끓어 번지지, 퇴근시간은 다 되었지,

아버지가 밖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모순된 심리상태였었다. 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일 일찍 와서 볼 수밖에 없지."하면서 속 생각밖에 못했다. 남의 심정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이 림주임이 나에게 전화 한통을 거면서 "도서실 열쇠 나에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목마른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기쁘기가 그지 없었다. 뜻 밖에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렇듯 나의 인생길에서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나는 마음이 든든하고 가슴 한구석이 뿌듯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은 열정을 한 몸에 안고 무슨 일에서나 발벗고 나서서 임무를 착실히 완성한다. 내 뒤에는 이렇듯 모두가 하나하나 손길을 받쳐주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이 사람이다. 가장 얻기 쉬운것도 사람이다. 하지만 한번 잃은 사람은 다시 찾기 어렵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실한 인간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킬줄 아는 비결이다. 사람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게 아니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중한 인연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 하기에 사람들 속에서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것을 나는 정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련다. 세상은 더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 지면 관계상 우수상 작품을 싣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참가하여 주신 학생 및 교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심양시 조선족 중소학생 둔촌백일장

요녕조선문보 본사소식 5월 30일

'2015 심양시 조선족 중소학생 둔촌백일장'이 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을 비롯하여 후원단체들인 한국성남시, 심양시조선족문학회, 재심양한국인(상)회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심양시교육연구원 부태민 원장은 환영사에서 "둔촌백일장은 2007년 심양시 정부광장에서 진행된 제1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제10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 활동은 심양시와 성남시의 교육합작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 앞으로 문화교육면에서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문화교육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 할 것을 기대 한다"고 했다.

한국 성남시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답사에서 "조선족이 비록 중국에 살고 있지만 같은 피줄의 동포이고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백일장을 통해 둔촌 이집선생이 실천했던 우정과 효행과 충성심을 본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주최측은 심양시 조선족 제6중 신문걸 교장, 심양시 교육연구원 박영철 주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심양시조선족학교와 심양시한국국제학교에서 추천한 600여명의 학생들과 부분 교원들이 "미역국", "보이지 않는 얼굴", "도심속의 텃밭", "길" 등 4개 명제를 놓고 백일장을 펼쳤다. 평심결과 소학조에서는 서탑조선족소학교의 김미혜("도심속의 텃밭")과 화신조선족소학교의 최지강("길")이, 초중조에서는 심조6중의 지가영("도심속의 텃밭")과 김

동희("미역국")가, 고중조에서는 심조1중의 윤춘홍("보이지 않는 얼굴")과 장춘리공대학의 탕하(湯霞, "보이지 않는 얼굴")가 교원조에서는 심조3중 조남일("길")이 각각 장원상을 획득했다.

평심 진행중에는 각 학교에서 추천된 정채로운 종목의 문예공연이 있었다.

"둔촌백일장"은 심양시교육국과 한국성남시문화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심양시교육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올해까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선화>

중·한 문학인 만남, 일곱번째 시 랑송회

요녕조선문보 본사소식/ 전 매 기자

중한수교 23주년 기념 및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국제자매 결연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5년 중한 문학인 만남, 일곱번째 시랑송회"가 5월30일 심양시 한중교류문화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성남문화원과 심양시조선족문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동북3성한인총련합회, 재심양한국인(상)회와 한중교류문화원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성남문화원, 심양시 교육계통, 주심양한국총령사관과 한인단체 관계자 그리고 심양시조선족문학회 회원과 심양한국국제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시랑송회 1부에서는 한국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의 인사말과 주심양한국총령사관 이정한령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심양시조선족문학회 권춘철 회장이 중한 문학교류에 기여한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김대진 원장이 성남문화원을 대표하여 권춘철 회장, 이정한 령사, 심양한국국제학교 김대인 교장을 비롯한 7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심양시조선족문학회 리창인고문의 자작시 "끝이 없어 못 갑니다"와 조마리아녀사 작 "안중근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녀사의 편지"등 26수의 시랑송과 섹소폰연주, 통기타연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되였다.

한편 행사관계자들은 래년의 시랑송회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0회 둔촌중국백일장 입상작품집

발 행 : 2015. 6. 30
발행인 : 김 대 진
편집인 : 김정진, 고웅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신흥동 6926)
전 화 : 031)756-1082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이 책자는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비매품)

제10회, 2015
둔촌 중국 백일장
스케치

문의처

성남문화원 사무국 Tel. (031)756-1082